

# 軍, 대북 확성기 방송 2시간 만에 중단 '상황 관리'

### 군 소식통 "강 대 강 대치 최선인지...냉정·절제하는 모습 필요" '위협 강도 낮은' 김여정 담화에 대통령 순방 등도 영향 가능성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가동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군 당국이 10일에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언론에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우리 군이 어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오늘도 꼭 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날 대북 확성기를 가동했지만, 이날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해 가동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어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 만에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의 휴식 등도 고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대에 작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과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날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우리 군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자,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대남 오물 풍선 310여개를 추가로 살포했다. 김 부부장은 오물 풍선 살포 직후 담화에서 "만

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빠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지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응한 담화치고는 대남 비난 발언의 수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군에서 별도의 담화나 성명이 나오지도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김여정 담화의 톤이 그리 강하지 않다. 조준 타격 등 강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위를 조절해서 발표한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군 소식통도 "김여정 담화의 수준이 이전과 다르게 물러나는 모양새로, 수학적 위협이 적고 위협의 강도도 낮았다"면서 "이런 시점에 '강 대 강' 대치가 최선인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것도 확성기 가동을 보류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

### 튀르키예·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량 앞에서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치마 정장 차림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적힌 에코백을 들었다. 이날 공항에는 이장관을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부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인사와 목례를 하고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튀르키예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토프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검토

###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에 반발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과 관련해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위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하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수위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운영·법제사법위원회 중 1개를 내주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원내 지도부 입장은 강경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회 독재"라며 "비명횡사 공천을 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에서도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 카드로 맞서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 전반이 때 여야 협상 불발로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의석 수 도는 다르지 않지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당시보다 활동 공간이 조금 넓어졌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 여당의 특위는 사실상 상임위로 보면 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은 야당의 정책보다는 정부와 함께 발표한 정책을 더 신뢰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국정 평가 긍정 31.5%·부정 65.1%

### 리얼미터, 9주 연속 30% 초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공휴일인 6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9%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65.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1%p ↑), 대전·세종·충청(2.3%p ↑), 부산·울산·경남(1.8%p ↑)에서 올랐고, 광주·전라(1.2%p ↓), 서울(1.1%p ↓)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20대(6.2%p ↑), 30대(1.5%p ↑), 40대(2.1%p ↑), 60대(2.8%p ↑)에서 상승했고, 50대(3.5%p ↓), 70대(3.8%p ↓)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2%p ↑), 진보층(3.1%p ↑)에서 상승, 보수층(2.5%p ↓)에서 하락했다.

한편, 지난 5일과 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4.5%, 더불어민주당 35.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4%p, 민주당은 1.8%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0%, 개혁신당 5.2%,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3%, 기타 정당 1.6% 등이었다. 무당층은 7.2%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방블라투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